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관한 이론적 탐색*

양 종 모**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대한 이론적인 탐색에 있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둘째,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 참여자로 연구진과 연구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된 대상자 등을 분석하며, 셋째, 연구 결론으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참여자 특성을 밝혔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양한 참여자 구성을 보이는 일반적인 이론과 달리,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음악 교육 전공의 교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

차 례

I. 서 론

II.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 이론

1. 타일러와 이성호의 모형
2. 슈왓의 모형
3. 놀린의 모형
4. 이돈희 외의 모형

III.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 분석

1. 연구진 구성
2. 협의회 참여자
3. 세미나 참여자
4. 설문 조사 대상자
5. 참고 문헌에서 이해되는 참여자

IV. 결론 및 제언

*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I. 서 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¹⁾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설계도로써, 국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도달해야 하는 교육의 목표,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목표의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교육과정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현실과 미래 전망, 학생과 교사의 특성, 국내외 교육 현황 등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이해해야 하며,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개발된 교육과정의 모습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함수곤 외, 2003, p. 23), 교육과정 개발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는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는 연구진, 교육과정 적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나 설문조사의 대상자,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회, 세미나 등의 참석자 등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계하는 자를 통칭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대해 듀이(J. Dewey)와 타일러(R. Tyler)는 교과, 학습자, 사회의 세 집단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집단의 요구에 근거하여 철학과 내용을 정해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홍후조, 2002, p. 22), 이성호(2004b, p. 254)는 듀이와 타일러와 유사하지만 교육의 생산자(교사, 내용 전문가), 소비자(학생, 학부모 등), 그리고 조장자(정책입안자, 연구자 등)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이

1)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는 교육과정 개발이 국가 수준, 혹은 학교 수준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만 한정하여 다룬다.

세 집단이 총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지도자들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슈왑(J. Schwab)은 교과, 학습자, 환경(사회) 그리고 교사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사를 중시하는 형태를 보여 주었으며, 교육과정 전문가가 네 집단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숙의하게 하고 조정 역할을 하는 안을 제안 하였다(강현석, 주동범, 2004, p. 118; 김인식 외, 1996, p. 66). 또한 뉴런(J. Newlon)이나 타바(H. Taba)는 여러 집단이 고르게 참여하는 것보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홍후조, 2002, pp. 112-117; p. 241).

우리나라는 일곱 차례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이돈희 외는(1997, p. 121) 교육부와 총론 연구 개발팀 그리고 교과 교육 전문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축을 이루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를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교과 교육 전문가 집단이 주체가 되어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 교과 교육을 접하는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워져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개발의 참여자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대한 이론적인 탐색에 있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둘째,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진과 연구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된 대상자 등을 분석하며, 셋째, 연구 결론으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참여자 특성을 제시한다.

Ⅱ.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 이론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는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는 연구진, 교육과정 적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나 설문조사의 대상자,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회, 세미나 등의 참석자 등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계하는 자를 통칭한다.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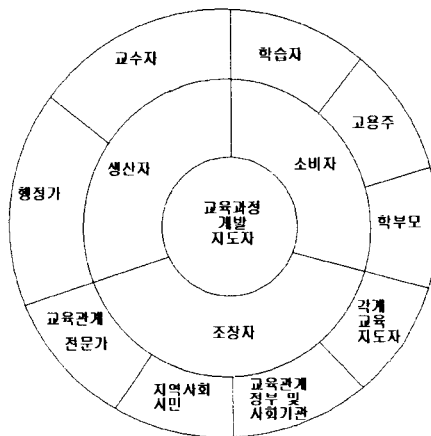
1. 타일러와 이성호의 모형

고전적인 교육과정 이론가인 타일러는(R. Tyler)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에 대한 연구와 사회의 요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교과 전문가의 제언을 받아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학습심리학적 기준과 교육 철학적 기준에 비추어 분석하여 다시 실질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김진규, 2002, p. 52; 홍후조, 2002). 여기서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 특성, 학생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 등이 포함되며, 사회의 요구에 대한 조사는 현재 사회의 현상과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고, 교과 전문가의 제언은 교과의 내용, 교사의 특성, 학습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제언을 의미한다. 홍후조는(2002) 이를 교과, 학습자, 사회의 세 축으로 구분하고, 이 세 축이 고르게 기능하고 조합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세 축이 고르게 기능한다는 의미는 사회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호는(2004b, pp. 252-255)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로 타일러와 유사한 세 축을 말하고 있지만, 그는 생산자, 소비자, 조장자(facilitator)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자는 행정가와 교수자를, 소비자는 학습자, 고용주, 학부

모를 그리고 조장자는 교육과정 전문가, 지역 사회 시민, 교육과정 정부 및 사회 기관, 각계 교육 지도자를 칭하며, 이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성호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조장자와는 별도로 ‘교육과정 개발 지도자’를 두고 있는데, 교육과정 개발 지도자는 말그대로 교육과정 개발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세 축의 의견을 조합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타일러와 이성호는 용어는 다르지만 학습자와 사회 그리고 교과 의견의 고르게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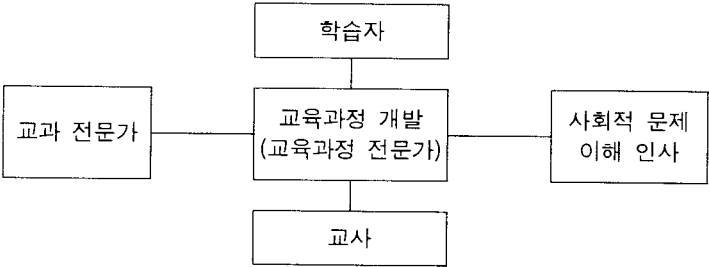
<그림 1> 이성호의 모형

2. 슈왑의 모형

슈왑(J. Schwab)은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숙의 과정에는 다섯 가지 범주의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의 네 가지 공통요소를 학습자, 교사, 교과, 환경으로 두고,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숙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사, 즉 교육과정 전문가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강현석, 2004, p. 118; 김인식 외, 1996, p. 66). 슈왑이 설정한 각 참여자들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학습자 자신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며,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어떤 인사(예를 들면, 심리학적인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며, 교사는 교과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교과에서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어떻게 창출해 내는가, 주요 개념과 지식, 어떤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가 등에 관한 것을 이해하는 인사이다. 그리고 교과 전문가는 교사들과 학급의 복잡성, 교사들의 당면하고 있는 요구 사항, 교육과정의 실행과 관련된 필수 사항 등을 이해하는 인사이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인사는 지역사회, 경제적, 정치적 실제 및 이들 실제와 관련 있는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인사들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정 전문가는 네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전체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슈왑의 주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슈왑의 모형

타일러와 이성호가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로 세 축을 제시한 반면, 슈왑은 집단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교사’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슈왑의 모형에서는 교사에 대한 이해,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요구 사항, 교육과정의 실행과 관련된 필수 사항, 교과 이해 등 교사와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전문가에 의해 교사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놀런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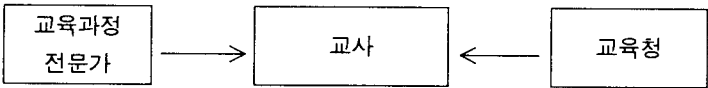
1922년에 콜로라도주 수도인 덴버시의 교육장이었던 놀런(J. Newlon)은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이를 적용하고 실현하는 교사들의 노력없이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교사가 명실공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교육 및 연수방법이라고 보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길을 열었다(홍후조, 2002, pp. 112-117).

놀런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교사들의 수업과 교육을 바꾸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겼다. 놀런은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칠 것을 결정하는 데 광범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잘 훈련되고, 능력이 있으며, 열심히 가르치게 되고, 학생에게도 보다 자연스럽고, 보다 활기차고 의미있는 교실수업을 베풀 수 있다고 보았다. 놀런이 시도한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사들은 교장과 장학사 등이 참여한 교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책임자를 맡았다.
- 교사들의 수업은 대체 교사가 고용되어 맡았고, 교육과정개발 참여 교사들은 학교 근무 대신에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참여하였다.
- 전국 각지에서 약 30명의 교육과정 전문가와 학자들이 덴버시로 와서 교사들의 교육과정개발을 도와주었다.
- 각 교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는 목표, 내용선정, 수업방법 설계(발문 포함), 다양한 대안 활동, 가용한 자료를 개발 제시하였다.
-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는 시험 적용해 본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교수요목을 수정하고 수정된 것을 확산 보급하였다.
- 교육청의 측정평가부에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마련한 검사항목들을 검토하였다.

놀런의 모형에서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의 책임자이지만 모든 개정 과정을 교사들이 독점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그 개정된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놀런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개발의 전 과정을 모두 맡겨 버리는 것은 교사들을 개발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큼이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일생을 두고 한 교과만 연구하는 또 다른 종류의 전문가들이 교사 곁에 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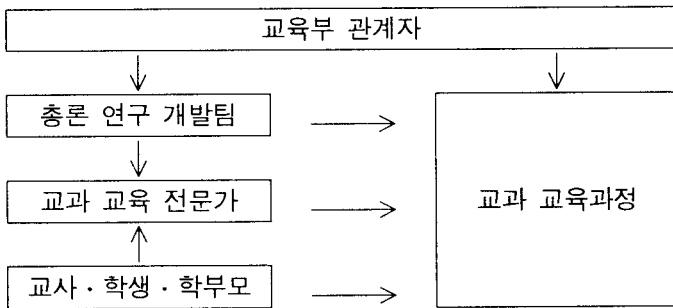
<그림 3> 놀런의 모형

놀런이 주창한 교사 중심 모형은 교사가 개발의 책임자가 되고, 교육과정 전문가와 장학사가 지원하는 구도로 짜여 있다. 놀런의 모형은 타일러나 슈왓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인사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합리적인 조합 모형과는 구별되며, 말 그대로 교사 중심의 개발 모형을 보여 주고 있다.

4. 이돈희 외의 모형

이돈희 외는(이돈희 외, 1997, pp. 119-121)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를 교육부 관계자, 총론 연구 개발팀, 교과 교육 전문가, 교사·학생·학부모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의미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기를 결정하고,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며, 총론 및 각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를 선정하며, 연구 개발된 교과 교육과정 시안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총론 연구 개발팀은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의도하며,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총론 연구자들은 때로 교과 교육에 구체적인 시사를 줄 수 없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교육 전반의 시각이나 학

생의 입장을 토대로 교과 관계자들이 자신의 교과에만 갇힌 사고에서 탈피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도록 주문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셋째, 교과 교육 전문가 집단은 교과 교육을 연구하고, 관련된 논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교과 교육을 발달시켜 온 사람들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주관한다. 넷째, 교사·학생·학부모는 교과 교육과정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 교육이 관계 맺게 하며, 이들은 교육 수요자라는 점에서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그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할 집단이다.



<그림 4> 이돈희 외의 모형

제7차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하나의 범주, ‘교과 교육 전문가’가 하나의 범주, ‘총론 연구 개발팀’, ‘교육부 관계자’가 각각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다. 이 범주 구분과 각각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의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교육부 관계자나 총론 연구 개발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성이 드러나며, 앞서 제시한 타일러, 이성호, 슈왓, 놀런 등에서 나타나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행정가와 총론 연구자 그리고 교과 교육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이론마다 참여자의 분류와 참여 정도의 차이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의 범주에는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전문가, 교사, 학습자 그리고 사회적 인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Ⅲ.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 분석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작성되었던 보고서(인천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개정위원회], 1997)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이 장에서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를 개발 연구진과 연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한다.

1. 연구진 구성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인천교육대학교팀의 주관 하에 개발되었다. 전체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음악과, 중학교 음악과, 고등학교 음악과, 고등학교 음악 관련 선택과목(음악과 생활),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과목(음악이론·음악실기)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협력연구진이 구성되었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를 총괄하고, 공동연구진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진은 시안을 개발하고, 협력연구진을 구성하며, 협의회를 주관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아 연구를 주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동연구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과 분야에 각각 2-3명씩 배정되었으며, 대부분 음악교육 전공자들이었다. 공동연구진 전체는 13명이었지만 일부 참여자가 몇 개의 학교급에 동시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8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연구진은 연구 과정에서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전달했던 그룹으로 이해된다.

협력연구진은 초등학교 16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음악과 9명, 고등학교 음악 관련 선택과목(음악과 생활) 9명, 고등학교 음악 관련 선택과목(음악이론·음악실기) 9명 등 전체 55명이나 몇 개의 학교급에 동시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43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연구진 중에는 이론적인 연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고 용역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연구 용역은 음악교육 전공자 6명과 음악학자 1명이 수행하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인원은 연구책임자(1명), 공동연구진(8명)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공동연구진과 동일하다. 그리고 원고 용역은 협력연구진 중 1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를 주도한 인사 중 2명(음악학, 국악)을 제외한 14명은 모두 음악교육 전공자였다.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 전체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그리고 협력연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급별 전체 연구진 수는 초등학교 20명, 중학교는 16명, 고등학교 음악과 13명, 고등학교 음악 관련 선택과목(음악과 생활) 12명, 고등학교 음악 관련 선택과목(음악이론, 음악실기) 12명 등 모두 73명(중복을 제외하면 52명)이었다.

전체 연구진의 전공을 살펴보면, 총 73명 중 음악교육이 61명(83.6%)이며, 국악은 8명(11.0%), 음악이론 혹은 음악학이 4명(5.5%)으로 대부분은 음악교육이었으며, 일부가 여타 음악 전공자(국악, 음악이론, 음악학)들이었다.

<표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전공

(단위: 명)

학교급 전 공	초등학교 음악과	중학교 음악과	고등학교 음악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과 생활)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이론 음악실기)	소 계
음악교육	19	13	12	9	8	61(83.6%)
국 악	1	3	1	1	2	8(11.0%)
음악이론 혹은 음악학	0	0	0	2	2	4(5.5%)
전체 연구진	20	16	13	12	12	73(100%)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한 연구진은 음악교육 전공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국악, 음악 이론 혹은 음악학 전공자들은 일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전체 연구진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나 연구직이 47명(64.4%), 교육행정직(연구관, 장학사, 교장 등)이 10명(13.7%), 그리고 교사는 16명(21.9%)으로 교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표 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직종

(단위: 명)

학교급 직 종	초등학교 음악과	중학교 음악과	고등학교 음악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과 생활)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이론 음악실기)	소 계
교수, 연구직	10	10	9	8	10	47(64.4%)
행정직	2	3	2	2	1	10(13.7%)
교 사	8	3	2	2	1	16(21.9%)
전체 연구진	20	16	13	12	12	73(100%)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연구진은 음악교육 전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직종은 교수나 연구직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협의회 참여자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의회는 총 여섯 차례 개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1차 협의회는 ‘음악과 교육과정 방향 설정’을 위한 것으로 김용진 외 30명이 참석하였으며, 2차 협의회는 ‘학교급별 음악과 내용 체계’에 대한 것으로 변미혜 외 16명이 참석하였다. 3차는 ‘학교급별 국악 학습 내용의 체계’ 협의를 위해 황병훈 외 5명이 참석하였으며, 4차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체제 협의를 위해 신계후 외 8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5차에서는 석문주 외 8명이 중간 시안을 협의하고, 마지막 6

차에서 장창환 외 20명이 최종 시안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협의회는 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는 연구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협의회의 참여자 구성은 연구진과 동일하게 교수와 음악교육 전공자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3. 세미나 참여자

제7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미나는 1997년 7월 15일에 1회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음악과의 성격, 목표와 내용의 선정 및 수준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게 되었던 것으로 보고 된다. 이 세미나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공동연구진인 석문주, 황병훈, 김준수가 발표하고 주태원, 정찬용, 허화병이 토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미나에는 연구진들이 발표하고, 연구진이 아닌 일부 외부 인사가 토론을 하였으며, 각계 인사가 청중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발표자는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교수이며, 토론자는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초등학교 교사, 국악 전공자인 중등학교 교사 등이었다. 세미나에서는 교사의 참여가 중시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설문 조사 대상자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시에 설문 조사는 제6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자는 25명이었으며, 우편 발송으로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 25명은 음악 교육 전문가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연구진과 유사한 인적 구성인 것으로 이해된다.

5. 참고 문헌에서 이해되는 참여자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서(개정위원회, 1997) 활용한 참고 문

현에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연구 중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이론(특히 평가와 포트폴리오에 관한 주제가 많음), 성취 수준에 대한 이론, 음악 교육 철학에 대한 이론, 미국의 음악 교과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음악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총론의 보고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 문헌으로 활용한 선행연구에는 음악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이론서나 외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의 실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 혹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²⁾ 이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선행연구를 통한 다양한 참여자의 요구나 의견 등이 수렴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고찰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로는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전문가, 교사, 학습자 그리고 사회적 인사 등의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전문적이고도 폭 넓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참여자에 대한 일반 이론과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를 비교하여 내린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연구진은 교수 직종과 음악교육 전공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크지 않으며, 일반적인 이론에서 나타나는 학생, 학부모, 사회 인사의 참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연구협력진 73명 중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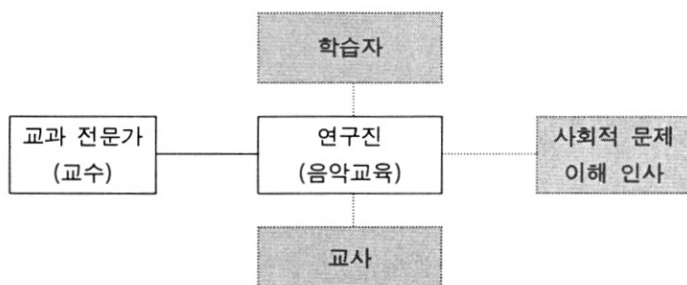
2) 요구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 김기석 외(1996)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가 있지만 이는 총론 차원의 조사로 음악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와는 거리가 있다.

명(21.95)만이 교사였으며, 연구를 주도한 공동 연구진 전체 13명 중 2명(15.3%)이 교사였다. 연구가 공동연구진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과정 개발에 교사의 참여 비율은 교수에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시의 협의회 참여자와 설문조사 대상자는 연구진 구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협의회는 연구진이 주로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도 음악 교육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또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는 음악교육 전공의 교수였으며, 토론자로는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협의회와 설문조사 대상자에서도 일반적인 이론에서 나타나는 학생, 학부모, 사회 인사의 참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세미나의 토론자로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발견된다.

셋째,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시 참고한 선행 연구 목록에서 학교 현장의 실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즉 교육과정 개발 시 문헌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자 범주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나 의견을 수렴하는 선행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는 교수나 음악교육 전공자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교사,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각계인사들의 참여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타일러와 이성호, 슈왈, 놀런, 이돈희 외 등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참여자 구조 특성]3)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는 일반 이론에서 사회 각계의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해당 국가나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 및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학문적 이론과 간격이 클 때,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첫째,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 구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사실을 알리려는 하나의 분석이다. 우리의 교육과정 개정의 참여자 구성에 대한 또 다른 사실 분석 연구가 추진되어 심도 깊은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특별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에 대한 일반 이론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나 의견 수렴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개발에 포함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에서는 교사를 중심에 놓고 있는 이론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진에서는 교사의 참여가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의 참여가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는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좋은 참여자를 확보해야 하며, 좋은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 건전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3) 점선 음영 부분은 비교적 비중이 적거나 없는 것을 나타낸다.

참 고 문 헌

- 강현석, 주동범 (2004). **현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권덕원 (2004). 학교 음악 교육: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27, 27-64.
- 김수천 (2002).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71-83.
- 김인식, 박영무, 최호성 (1996). **교육과정 이론과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규 (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동문사.
- 성경희, 권덕원 (1992). **제6차 교육과정각론 개정 연구: 초·중·고등학교 음악과** (연구보고 RR 92-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성경희, 양종모, 이경언 (2004). **음악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연구보고 CRC 2004-4-10).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미경 (2003).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양종모 (2002). **음악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02-4-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종모 (2004).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위한 기초 논의.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교육과정 세미나 연구자료 ORM 2004-29, 279-30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종모, 이경언 (2001a).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 (연구보고 RRC 2001-1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종모, 이경언 (2001b). **한국 초·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질적 접근** (연구 자료, OMR 2001-3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종모, 이경언 (2002).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I)** (연구보고 RRC 2002-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종모, 이경언, 주대창 (2001). **한국 초·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양적 접근** (연구 자료, OMR 2001-3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경언 (2004). **음악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 RRC 2004-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성호 (2004a).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서울: 학지사.
- 이성호 (2004b).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서울: 양서원.
- 이돈희 외 (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CR 97-3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해명 (1993). **고도 산업사회의 교육과정 및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흥수 (2004). 음악과 '성격·목표'에 관한 검토와 제안. **음악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연구보고 CRC 2004-4-10, 117-128).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흥수 (2004). 중등학교 음악과 교과교육 50년 반성과 전망: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 한국교원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자료, 634-667.
- 인천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199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교육부 위탁연구 답신보고서). 인천: 저자.
- 장기범 (2004).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음악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연구보고 CRC 2004-4-10, 94-10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함수근 (2000).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함수근, 김종식, 권응환, 왕경순 (2003).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허경철 (2003).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RRC-2003-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경철 외 (2005). **세계 각국의 최근 교육 동향 및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보고 RRC 2005-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진표 외 (2005). **대안 음악교육과정 연구**. 전국음악교과모임.
- 홍후조 (2002).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ABSTRACT

The Analyze of the Participant's Composition in developing the 7th National Music Curriculum

Jong-mo 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theory about the participant in the developing national music curriculum.

The content of research is

1. to categorize the general theory about the participant in the developing curriculum; and
2. to analyze the participant in developing the 7th music curriculum.

The research method is to analyze the report when it was made in developing the 7th national music curriculum.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ings.

1. The majority of the researchers in developing the 7th national music curriculum are the professors and music education majors.
2.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objects in developing the 7th national music curriculum are the professors and music education majors.
3. There is a few practical research about the context of schools and students in the references.

Keywords: curriculum, music curriculum, participant in developing the curriculum